**눅1220 Note**

**◆불의한 자의 재물**

눅1219. 그리고 내가 내 혼에게 말할 것이니라, 혼(魂)아, 여러 해 동안 네가 쌓여져 있는 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있느니라. 너는 느긋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거워하라.

Ω눅1220.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니라, 너 바보여, 오늘 밤에 네 혼이 네게서 요구되느니라. 그렇다면 네가 마련해온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랴?

Ω눅1221.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 놓고, 하나님을 향해 부요치 않은 그가 그와 같으니라.

욥2708. 이는 하나님이 그의 혼(魂)을 치우시는 때에, 비록 외식자(하네프:때 묻은,불경건한,외식하는,외식하는 자)가 얻었을지라도[바짜:꺾다,약탈하다,끝내다,그치다,시기하다,잘라버리다,이루다,(탐욕스럽게)얻다,(탐욕에)몰두하다,이룩하다,다치다,부상하다], 무엇이 그의 소망이 되겠음이냐?

렘1711. 자고새가 알들 위에 앉아 있으나 그것들을 부화시키지 못하는 것과 같이, 그와같이 정의(미쉬파트: 판결,언도나 공식적 선언, 사람의 법,율법,정의,권리나 특권,의식,예법,관습,결정,분별,재판,재판받다,정당한,바르게,정당한 절차,규례)에 의하지 않고 부(富)를 얻는 그는 그의 날들의 한 가운데서 그것들을 떠나느니라. 그리고 그의 종말에는 바보가 되느니라.

사4006. 목소리가 말하였느니라, " 외치라" 이에 그가 말하니라, "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모든 육신은 풀이며, 그들의 온갖 아름다움[헤쎄드: 하싸드(인사하다,친절하다,자비를 보이다)에서 유래,인자함,경외,아름다운,은총,선행,친절하게,인애,연민,자비,긍휼,책망,견책]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사4007. 풀은 시들며, 꽃은 쇠퇴하느니라(나벨:시들다,떨어지다,실패하다,실신하다,어리석다,약한,경멸하다,창피주다,경히 여기다,가치없게 만들다), 이는 여호와의 영(루아흐:바람,호흡,내쉼,생명,분노,영,숨,공기,돌풍,하찮음)이 그것 위에 훅 불으심이라(나솨브:불다,흩다,불게하다,몰아내다), 분명코 사람들은 풀이니라.

사4008. 풀은 시들며, 꽃은 쇠퇴하느니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있느니라(쿰:일어나다,지탱하다,성취하다,보다 명백해지다,확고해지다,계속하다,참다,유지하다,다시 들어올리다,실행하다,세우다,대항하여 다시 일어나다,일깨우다,공고히 하다,설립하다,자극하다,강하게 하다,성취하다,확실히 하다,떠받치다,들어올리는,포고하다)

약0110. 그러나, 부한 자는 그가 낮아지게 되는 점에서 기뻐하게 하라,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지나감이라.

약0111. 이는 태양이 타오르는 열기와 함께 솟기 무섭게 그것이 풀을 시들게 하며 또 그 꽃은 떨어짐이라, 그리고 꽃 모양의 우아함은 소멸하느니라. 그렇게 부한 자 역시 그의 길들 안에서 사라져 없어지느니라

Ω약0413. 이같이 말하는 너희들아 이제 기다리라 곧,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성(城)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1년을 계속 머물며 사고 팔아서 이득을 얻을 것이니라

약0414.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너희 생명(삶)이 무엇이냐? 이는 그것은 바로 그 안개임이라, 그것은 잠시 나타나서 다음에 사라지느니라.

Ω약0415. 그 까닭으로 너희는 이같이 말해야 되느니라 곧,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것이나 저것을 하느니라.

벧전0124. 이는 모든 육신은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예는 풀의 꽃과 같음이라,

풀은 시들며, 그 꽃은 떨어져 나가느니라

벧전0125. 그러나 주(主)의 말씀은 영원히 머무느니라(메노:머물다,거하다,계속하다,참다,출석하다,남아있다,서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을 통해 너희에게 전파되었던[유앙겔리조:좋은 소식을 선포하다,복음을 전파하다,기쁜 소식을 가져오다(보이다),복음을 가르치다] 말씀이니라.